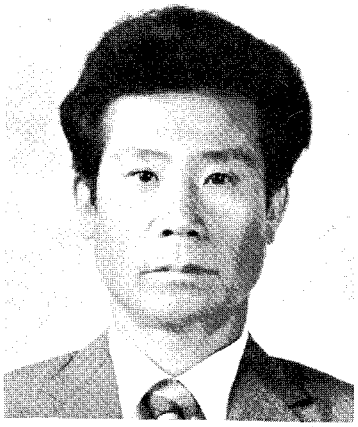
# 독일에 양계기술 수출 1호 문 열어

## 닭인공수정사 최춘봉씨

취재 : 김 용 화 기자

닭 인공수정하면 생소한 말처럼 느끼는 양계인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가축인공수정은 닭에서 학문적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나 요즈음은 소나 돼지에서만 실시되는 방법인 것처럼 알고 있는 양계인들이 많다.

몇년전 본회가 주관하여 닭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유료 강습회를 가진 바 있으나 그후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만한 교육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독일을 다녀온 최춘봉씨

그러나 국내 종계업에서는 인공수정이 95%이상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생각보다는 상당히 닭인공수정 기술이 발전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붓으로 하던 기술이 일약 K 출까지 성장

최춘봉씨는 종계업계에서 닭인공수정사란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이름난 사람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가 고향인 그는 1976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전하던 중 농장에서 일을 하다 권유를 받아 인공수정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 때는 종계장의 규모가 대개 500수 정도가 태반이라서 수입도 월 2~3만원이 고작이었다. 인공수정에 쓰이는 기구도 제대로 없어 붓으로 겨우 발라주는 방법이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몇해안가 면역성으로 인해 인공수정율이 저하되고 양축가들이 수탉이 늘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인공수정에 관심이 커져 급속히 발전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인공수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이 경험에 의해 닭인공수정사란 전문가의 딱지를 붙이기까지 근 11년 동안 그는 전국의 종계장을 누비고 다녔다.

### 닭 인공수정사로 독일을 가다

그러던중 작년 2월 12일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 소장의 주선으로 독일 HUBERTUS FRISCHEI GMBH & Co. KG의 ZIMMERER JOSEF氏의 농장에서 닭인공 수정사로 한국인 사상 처음 87년 11월 30일까지 해외근무라는 기록을 남기고 귀국했다. 최춘봉씨를 만나 해외근무 소감을 들어 보기로 하자.

독일은 최근까지 닭의 인공수정은 시도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다. 생산물을 중동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계산업이 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농장이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여자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력이 강해 한국 남자들보다 두배 정도는 일을 하고 있다.

그곳 농장의 규모는 산란계사 1동에 7만수를 사육하는데 4단 내지 5단 케이지로, 길이는 우리나라 3단 케이지 1만5천수 계사보다도 짧다. 책임 관리자의 보수는 한화로 계산 1백80만원 정도인데 최씨는 60만원을 받고 종계 3만6천수의 인공수정 업무를 전담했으며 몇명의 독일인에게 인공수정 기초 기술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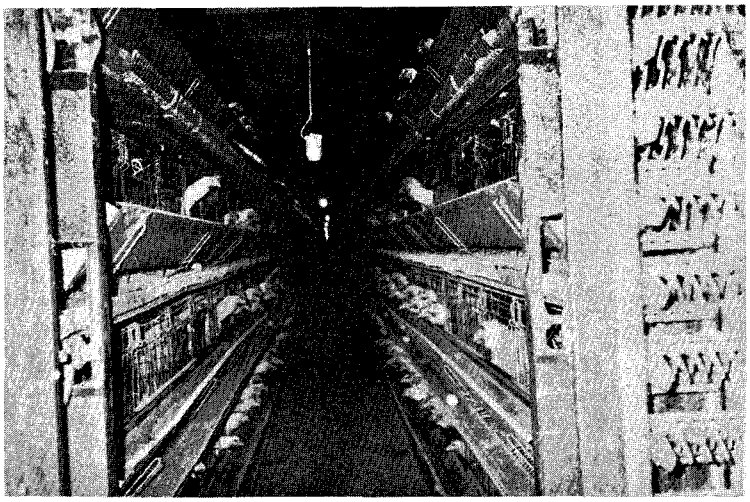
독일 농장의 계사구조는 자동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경제성을 고려하여 튼튼하게 설비되어 있다. 그러나 종계장은 자연교배를 실시하고 있어 케이지 사육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수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4일에 1번 수정하는 수정율과 같다. 작업시간은 24시나 1시에 시작 새벽 5시나 6시까지 하고 있다. 계사가 4단 케이지이라 보조대를 타고 다녀야 했으므로 2인1조 작업을 했다.

최씨가 독일인 보다는 비록 낮은 급료(월60만원중 생활비 40만원)를 받아 가며 굳이 근무를 하였던 것은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인공수정 기술이 보급되지 않은 독일로 닭 인공수정 기술 수출 1호라는 매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 *종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양계산업 발전돼*

독일을 다녀온 그는 현재도 국내에서 여전히 닭인공수정을 본업으로 삼고 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근 양계산업에 불어오는 불황 때문에 수입도 줄고 텅빈 계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인공수정사의 숫자가 1천여명이



▲독일 산란계사 내부 모습(튼튼한 급이기가 이색적이다)

넘는데도 정식 영업허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정도로 양계산업에서 인공수정사의 비중을 작게 생각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인공수정 주입기술은 1개월쯤이면 배울 수 있으나 항문개장까지 배우려면 5개월이 지나야 한다. 닭의 건강상태까지 파악하려면 무려 4~5년이 지나야 숙련자로 인정을 받는데 대부분 도급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낮은 급료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도급시 대략 수당 60~80원선에서 계약을 하지만 보조원 급료주고 나면 별반 남는게 없으며 경쟁이 치열하여 돌아오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 *종계사 오염문제 해결 급선무*

무엇보다 닭인공 수정사로서 어려움이란 계사가 각종 질병에 오염이 되어 있어 수정율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주인이 기술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도 최근에는 수탉용 사료도 별도로 나오고 인공수정 기구도 종로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사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탉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양관리에 있어서도 무조건 암탉하고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별도로 사육을 하는 것이 수탉관리에 가장 좋으며 점등관리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우수한 정액을 생산해야 결국 우수한 병아리가 생산되어 양계산업에 발전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전문 인공수정사들이 마음 놓고 종계장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도 수정율에 대한 불안이 없어질 수 있어 인공수정사의 생활 향상에 기여가 된다는 지적을 해 주고 있다.

앞으로 양계산업은 최춘봉씨 처럼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수출품목으로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결국 독일보다 닭인공수정기술이 발전했음을 최춘봉씨는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본다.